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을 좇아가지 말라.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5월 1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55호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포교 화두 'Z세대' 조계종 본격 논의

포교원, 7월 4일 Z세대 포교 간담회 열어

SNS와 모바일을 활용하는 젊은 Z세대에 대한 포교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계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4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문수실서 Z세대 포교 방안을 모색하는 포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본지 기획 보도(1151~1153호)** 이후 Z세대 포교의 필요성을 인지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직접 주최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 포교국장 노휴 스님 등 포교원 관계자들과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유권준 불광미디어 전략기획실장, 이준식 정토TV SNS팀장, 구희철 불교TV PD, 본지 노덕현 기자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간담회는 패널의 발언과 포교원 관계자들의 질의 등으로 이뤄졌다.

유튜브 속 '콘텐츠 확보' 관건

간담회서는 Z세대가 주로 애용하는 유튜브 속 종교 콘텐츠 현황이 논의됐다. 본지 노덕현 기자는 "현재 유튜브 속 이웃종교계는 일명 Z세대 포교를 위해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각 교회에서는 연예인 신도의 활동을 올리는가 하면 목사들의 설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는 "불교계 콘텐츠는 특정 유명 스님들의 법문에 국한돼 정량적인 콘테츠 수, 정성적인 조회수에서도 이웃종교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간담회 패널들은 유튜브 콘텐츠 확보를 위한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권준 불광미디어 실장은 "유튜브에서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콘텐츠 외 정신적 위안을 주는 콘텐츠 수요도 많다"며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불교를 흥미롭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영 책임연구원은 "자기가 갔던 사찰과 사찰 설명을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면 입장료를 할인해주고 기념품을 주는 등 일종의 프로모션이 필요하다. 또 선도적으로 유튜브 포교를 해나갈 SNS전법단 구성 등 조직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대 공감이 Z포교 이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콘텐츠 생산에 있어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준길 정토TV SNS팀장은 "젊은 세대에 인기가 많은 법륜 스님 즉문즉설의 경우 시대 고민과 소통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법문도 불자층, 일반인층을 나눠 진행한다. 불교에 관심이 없는 젊은 층을 겨냥해 삽화나 만화 등을 활용해 흥미를 주는 등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재응 책임연구원은 "법륜, 혜민 스님 등 스타 스님으로 착시현상이 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브랜드파워가 있는 생산자들이 부족하다"며 "그 무엇보다 인재양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지 노덕현 기자도 "취재 과정에서 승가교육의 IT강습이 종무행정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준에 불과했다. 승가교육부터 신도교육까지 스마트폰 활용, 사진 및 영상촬영, 편집, SNS활용 등을

本紙 보도 후 필요 공감
포교원장 스님 직접 주최
'인력·콘텐츠 확보' 제안
"모임 구성해 지속 경청"

교육한다면 관심이 있는 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BJ절절'로 활동했던 구희철 불교TV PD는 불교계 인식 전환을 함께 요구했다. 구희철 PD는 "BJ로 활동해보니 제한이 많았다. 가령 젊은 세대들이 불상에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를 한다면 기성 불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간담회 후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다. 시대 급변에도 종단과 불교계의 더딘 변화 때문"이라며 "새로운 포교에 관심있는 불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포교원이 할 수 있는 일이다. Z세대 포교를 위한 모임을 지속 갖는 등 시대 흐름에 맞는 포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채식하고 기부하니, 心身이 가볍네! 매주 목요일에는 조계종 나눔캠페인 '채식데이 기부데이'를 실천하기 위한 불자들의 작은 실천이 이어진다. 7월 6일 서울 불광산사 채식당에서는 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들이 몸을 가볍게 하는 채식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기부를 동시에 실천했다. 매주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포교사들이 캠페인 리플렛과 이날 기부금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결집대회 열어

순천 선암사 소유권 문제로 태고종과 소송 중인 조계종이 광주서 대규모의 '선암사 정상화 결집대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태고종은 "사법기관에 압력을 넣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6일 광주 무각사서 '한국불교 교단사 확립과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호남 결집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집대회는 7월 7일 고등법원 심리에 하루 앞선 것으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등 각 기관 대표와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 등 600여 명이 운집했다.

조계종의 이 같은 대규모 결집대회는 지난해 7월 태고종이 조계종에 제기한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태고종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 측은 곧바로 항소했고, 현재 5대 법무법인으로 꼽히는 태평양과 화우가 소송을 맡았다.

이날 결집대회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선암사는 조선불교조계종 31본산의 하나이며, 1962년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제20교구본사로 자리한 소중한 도량이다. 종단의 정상적인 관리에 대해 일부 세력은 법과 종무의 근거도 없이 사찰을 부당하게 점유해 대항했다"면서 "태고종 선암사는 2011년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억지스런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선암사를 넘어 한국불교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계종 "태고종 불법점유"
VS
태고종 "억지주장 그만"

또한 조계종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 일동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선암사를 불법점유한 태고종은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부정하는 역사왜곡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올바른 한국불교 교단사와 선암사 역사 홍포 △불교 자산과 선암사를 온전히 계승하기 위한 활동 등을 펼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선암사대책위 공동위원장 진화 스님(송광사 주지)은 "태고종 측이 대처승 청산을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종단 정화를 이끄신 동산 스님과 청담 스님 호적 자료를 무단으로 입수해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두 어른 스님 또한 대처였다는 태고종의 주장은 역사왜곡을 넘어 종단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태고종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은 조계종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스님은 "두 어른 스님 호적자료는 이미 우리 종단 내에 있는 것인데다 조계종은 '대처승은 중이 아니다'는 식의 자료를 법원에 수도 없이 제출했다"고 성토했다.

태고종 선암사 총무 승범 스님은 조계종 결집대회를 간접적 실력행사로 평가했다. 스님은 "소송 과정 중인 이 시기에 대규모 결집대회를 여는 것은 사법기관에 압력을 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향력을 과시한다고 해서 사법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보기엔 억지 주장이고 타당치 않은 얘기들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현대불교 새 연재

도정 스님의 '대장부론' 시즌2



〈대장부론〉은 인도 학승 제바라가 지은 것으로 보시와 자비행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시인 도정 스님이 지난해 연재가 미완돼 다시 이어 연재한다. 시즌2로 돌아온 〈대장부론〉을 통해 보시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10면

도연 스님의 '靑春 사이다'



'카이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도연 스님이 '청춘' 그리고 '희망'을 말한다. 도연 스님은 본지 연재 '靑春 사이다'를 통해 대학생 및 직장인 등 20~30대 청춘들을 위한 격려와 치유의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다. B7면

정찬주의 '스님 이야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인 정찬주 작가가 법정 스님을 비롯한 당대 선지식 스님들을 만나고 듣고 경험했던 일화들을 소개한다. 문인과 선지식 스님들의 인연담을 통해 삶의 교훈과 가르침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차주부터 연재〉**

